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긍정, 부정감정을 통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정호¹⁾, 강기노²⁾, 나수양³⁾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Jung-Ho Kim¹⁾, Ki-Noh Kang²⁾, Soo-Yang Na³⁾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감정인 공감, 부정적 감정인 분노표현방법의 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A소재의 1개 간호대학에서 2015년 3월 1일부터 5월30일까지 연구참여에 동의한 임상실습중인 172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공감, 분노표현방법, 대인관계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다중매개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효과 ($b=0.86$, $CI=0.56, 1.15$), 직접효과($b=0.62$, $CI=0.56, 1.15$), 간접효과($b=0.24$, $CI=0.08, 0.46$)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부분매개 변수 중 분노억제($b=0.27$, $CI=0.13, 0.46$), 분노표출($b=-0.12$, $CI=-0.33, -0.01$) 변수가 본 연구 모델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적절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향상 및 적절하게 분노억제, 분노표출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어 :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분노표현, 공감, 다중매개효과

Abstract

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ultiple mediator effects of empathy and anger expression in the effect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y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provide basic data to develop a program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study subjects were 172 nursing students having clinical practice from March 1st to May 30th in 2015 from one nursing university

Received (May 1, 2016), Review Result (May 16, 2016)

Accepted (May 23, 2016), Published (July 31, 2016)

¹51217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2640 Hammadaero, Naeseo-eup, MasanHoiwo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email: jhk@masan.ac.kr

²(Corresponding Author) 51217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2640 Hammadaero, Naeseo-eup, MasanHoiwo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email: kinokang@masan.ac.kr

³130-702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hee University, Hoegi-dong, Dongaemun-gu, Seoul, Korea

email: epue09@hanmail.net

located in A.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self-report survey on self-esteem, empathy,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following is the result; significant are total effect($b=0.86$, $CI=0.56, 1.15$), direct effect($b=0.62$, $CI=0.56, 1.15$) and indirect effect($b=0.24$, $CI=0.08, 0.46$), and anger-in($b=0.27$, $CI=0.13, 0.46$) and anger-out($b=-0.12$, $CI=-0.33, -0.01$) among partial mediating variable played partial mediating roles in this stu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for improv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nursing students to properly repress and express anger.

Keywords :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ger expression, Empathy, Multiple Mediator Effe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성인 초기로써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달성해야하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1]. 이 시기에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간호업무를 경험함으로써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직군의 의료보조인 및 간호 대상자를 접촉하면서 간호사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게 되므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2]. 그러나 대인관계 능력은 짧은 기간 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학부과정에서부터 습득해야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임상환경 적응뿐만 아니라 간호 대상자들과 치료적 관계형성에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3].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공감, 분노표현방식 등의 변수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7].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지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며 타인과의 원활한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므로 대인관계 능력 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4].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되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감을 갖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5].

공감은 타인에 대한 이해력과 예측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6]. 공감 능력이 높으면 임상에서 간호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간호 술기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7].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심각한 경우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 그리고 간호대학의 엄격한 교육과정과 과중한 학습량뿐만 아니라 선·후배간 위계질서, 임상실습, 국가고시 등 과중한 부담으로 오히려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져 결국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2][6][8-9].

학업과 임상실습 과정에서 생긴 부정적 감정은 자연스럽게 분노감정으로 이어지며, 표출, 억압,

통제하는 자신의 분노표현방식 따라 이를 처리하게 된다[10]. 하지만 이러한 분노가 과도하게 표출, 억압되는 경우 결국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데 장애가 되므로 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은 간호대상자들과 원만한 치료적 관계를 맺으며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사회심리적 요인이라 하겠다[10-12]. 이처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4-7,13-16],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는 태도인 자아존중감 수준이 사회적응의 중요한 요인인 대인관계수준에 미치는 영향사이에서 심리사회적 변수인 공감정도, 분노표현방식에 따라 어떻게 매개하는 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과 분노표현방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의미 있는 매개변수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인관계 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분노표현방법의 다중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분노표현방식, 공감, 대인관계 수준을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분노표현방식, 공감,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분노표현방법의 다중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A소재의 1개 간호대학에서 2015년 3월 1일부터 5월30일까지 임상실습중인 184명의 3학년 간호대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0명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공감, 분노표현방식, 대인관계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한 8명을 제외 한 최종 172명의 설문지가 연구 자료로 활용 되었으며,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 이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도 사용되지 않으며,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공감

공감은 Davis(1983)가 개발한 도구를 박성희(1994)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28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 '약간 아니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용한 이명선(20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4로 나타났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10문항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번안한 전병재(1974)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2.3.3 분노표현방법

분노표현 방법은 Spielberger 등(1985)이 개발한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를 전경구 등(1997)이 표준화한 한국판 분노척도(STAXI-K)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의 하위영역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 별로 8문항 씩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으로 구성된 Likert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 α 는 분노억제 .67, 분노표출 .67, 분노조절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제 .75, 분노표출 .71, 분노조절 .75이었다.

2.3.4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Schein, Guerney(1975)가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RCS)을 문선모(1980)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전체 25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원만하다 볼 수 있다. 진석균(1995)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표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다중매개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THE PROCESS SPSS macro (Hayes,

2013)를 이용하였다. 또한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5,000개의 붓트래핑 표본이 사용되었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추정치와 관련하여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95% 신뢰구간을 이용하였다.

3. 결론

3.1 연구변수의 일반적 특성

연구 변수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연구 대상자의 연구변수인 공감은 평균 90.52±7.79, 왜도 -0.10, 첨도 -0.34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평균 29.19±4.57, 왜도 0.73, 첨도 4.83로 나타났다. 또한 분노표현방법의 연구 변수인 분노억제 평균 18.49±4.10, 왜도 0.05, 첨도 0.51, 분노표출 평균 16.92±3.82, 왜도 0.24, 첨도 -0.28, 분노조절 22.00±3.41, 왜도 -0.07, 첨도 1.14이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인관계 평균 90.94±9.70, 왜도 -0.74, 첨도 1.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변수는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변수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for study variable

N=172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emphathy	90.52	7.79	-0.10	-0.34
self esteem	29.19	4.57	0.73	4.83
anger-in	18.49	4.10	0.05	0.51
anger-out	16.92	3.82	0.24	-0.28
anger-control	22.00	3.41	-0.07	1.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90.94	9.70	-0.74	1.07

S.D: Standard Deviation

3.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분노표현방식, 공감, 대인관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공감은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72, p<.001$). 자존감은 분노조절($r=.209, p<.05$), 대인관계($r=.404, p<.001$)와 양의 상관관계, 분노표출($r=-.274, p<.001$), 분노억제($r=-.360, p<.001$)와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표출은 분노억제($r=-.364, p<.001$)와 양의 상관관

계, 분노조절($r=-.524,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억제는 대인관계($r=-.390,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분노조절은 대인관계($r=.162,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2.]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for study variable

N=172

variable	emphathy	self esteem	anger-out	anger-in	anger-control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hathy	1					
self esteem	.052	1				
anger-out	.065	-.274**	1			
anger-in	.038	-.360**	.364**	1		
anger-control	.074	.209*	-.524**	-.124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272**	.404**	-.062	-.390**	.162*	1

*: $p<0.05$, **: $p<0.01$

3.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표 3). 분노표출($b=-0.23, p<.05$)과 분노억제($b=-0.32, p<.001$)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며, 분노조절에는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16, p<.05$). 매개변수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공감($b=0.31, p<.001$), 분노표출($b=0.53, p<.05$)이 양적영향을 미치며, 분노억제는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83, p<.001$).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b=0.62, p<.001$), 총 효과($b=0.86,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서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or Effect of Empathy, Anger Ex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172

	b	S.E.	t	p	LLCI	ULCI
The effect of self-esteem on mediator						
emphathy	0.09	0.13	0.69	.49	-0.19	0.35
anger-out	-0.23	0.06	-3.71	<.05	-0.35	-0.11
anger-in	-0.32	0.06	-5.03	<.001	-0.45	-0.20

anger-control	0.16	0.06	2.78	<.05	0.05	0.27
The effect of mediator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emphathy	0.31	0.08	3.83	<.001	0.15	0.46
anger-out	0.53	0.20	2.59	<.05	0.13	0.93
anger-in	-0.83	0.17	-4.92	<.001	-1.17	-0.50
anger-control	0.42	0.22	1.97	0.51	-0.00	0.46
The direct effect of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esteem	0.62	0.15	4.19	<.001	0.56	1.15
The total effect of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esteem	0.86	0.15	5.77	<.001	0.56	1.15

S.E.=Standard Error;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3.3.1 붓트래핑에 의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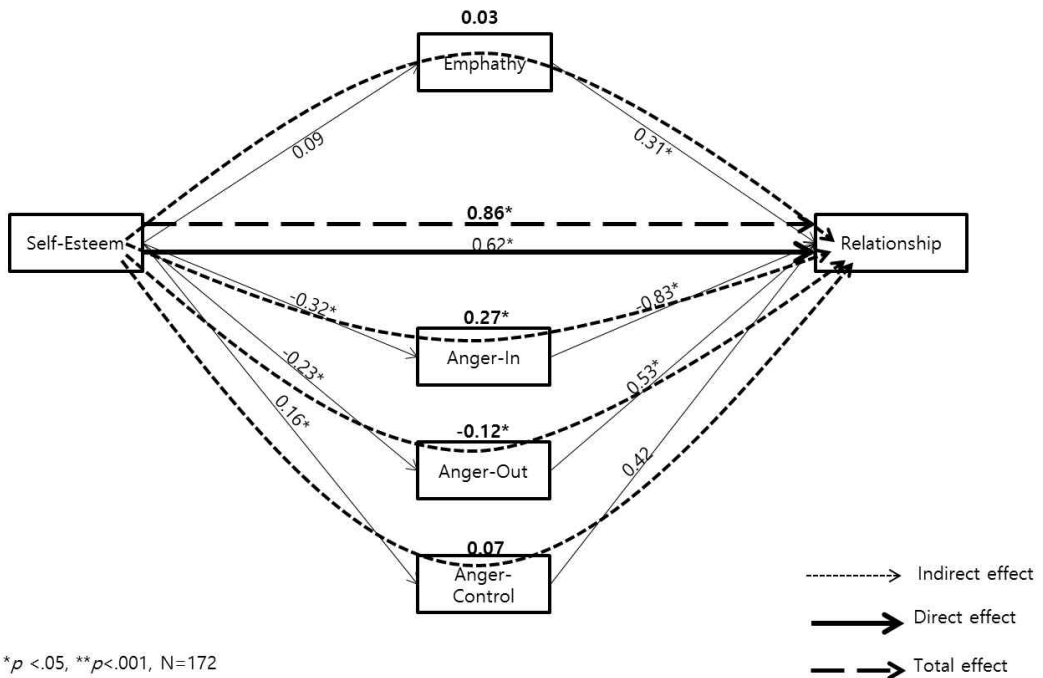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붓트래핑에 의한 매개변인의 총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0.24$, $CI=0.08$, 0.46). 간접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분노표출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b=-0.12$, $CI=-0.33$, -0.01), 분노억제는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미치는 영향사이에서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27$, $CI=0.13$, 0.46). 따라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의 직접, 간접 총 효과를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4.] 붓트래핑에 의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Table 4.] The indirect effect of Mediator variable by bootstrapping

	b	S.E.	95% CI	
			LL	UL
total indirect effect	0.24	0.09	0.08	0.46
emphathy	0.03	0.04	-0.04	0.11
anger-out	-0.12	0.08	-0.33	-0.01
anger-in	0.27	0.08	0.13	0.46
anger-control	0.07	0.06	-0.12	0.25

S.E.=Standard Error;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그림 1]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다중매개효과

[Fig. 1] Multiple Mediator Effect of Empathy,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betwee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4. 고찰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사이에서 공감, 분노표현방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효과적인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공감능력 점수는 90.5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ark과 Chung[14]의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점수는 102.9점과 Ji[14]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점수 110.4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타인과 관계형성에 매우 중요하다[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사이에서 공감은 간접효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3학년 학생만을 대상하였고, 치료적 관계와 공감능력 등을 실제적으로 학습하는 정신건강간호학 수업과 실습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29.19점으로 Park과 Chung[14]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29.4점으로 비슷한 결과이었으며, Jung과 Chung Cho[15]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28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Jung과 Chung Cho[15]의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학년의 차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이 약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왜곡하여 생각하기가 쉽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환경적 차원의 문제로 부정적으로 투사할 수 있다[16].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독립변수로서 대인관계에 직접효과 있었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시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분노표현에서 분노표출은 16.92점, 분노억제는 18.49점, 분노조절은 2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Jun, Jo,와 Na[11]의 연구의 결과 분노표출 16점, 분노억제 20.72점, 분노조절 20.24점과 유사한 결과이며, Sung, Kwang과 Lee[12]의 연구 결과 분노표출 16.55점, 분노억제 17.05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분노조절 16.68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임상현장에 간호사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처를 받고 분노를 느끼지만, 적절한 표현하지 못하여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12]. 본 연구에서도 분노표출은 자존감과 대인관계 사이에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억제는 양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분노표현의 방법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되어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진다.

References

- [1] E. H. Erikson, editor, Youth: Change and challenge. Basic books (1963)
- [2] S. J. Lee, S. E. Lee & M. H. Le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Str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2014), Vol.18, pp.61-70
- [3] R. Thomas, Editor, Health communication. Springer, New York (2006)
- [4]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 Vol.14, pp.2178-2186
- [5] I. S. Lee,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1), Vol.13, No.5(B), pp. 2487-2500
- [6] H. S. Jeong & K. L. Lee,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2), Vol.14, No.5(B), pp.2635-2647
- [7] M. O. Kang,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and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2015), vol.44, pp.208-238
- [8] J. Y. Kim & H. S. Park,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5), Vol.17, No.1(B), pp.545-559
- [9] M. J, Influence of Ego States, Self Esteem, and Empath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 Vol.16, No.7, pp.4614-4620

- [10] N. H. Cha & E. J. Seo,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2), Vol.23, No.4, pp.451-459
- [11] W. H. Jun, M. J. Jo & H. J. Na,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 Vol.15, No.3, pp.219-228
- [12] K. W. Sung, O. K. Kwag & W. H. Lee, Comparison of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010), Vol.21, No.1, pp.1-11
- [13] J. H. Park & S. K. Chung,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Empathy, Communication Skill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 Vol.16, No.11, pp.7698-7707
- [14] E. J. Ji,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14), Vol.16, No.3(B), pp.1685-1697
- [15] H. J. Jung & H. I. Cho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2), Vol.21, No.3, pp.188-196
- [16] H. Moon, M. J. Chung, J. Y. Kim,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011), Vol19, No.3, pp.253-260